

회 의 록(안)			
회의명	제14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(KIGA) KrIGF 프로그램위원회		
일시	2016.10.27(목) 13:00~14:00	장소	KISA 서초청사 인터넷주소센터
참석자 (총 8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원: 오병일(진보네트워크), 구본행(KISA), 김인숙(한국소비자원), 김태은(KISDI), 박기식(ETRI), 박지환(오픈넷), 윤복남(법무법인 한결) (존칭생략,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)</li> </ul>		
- 위원 : 7인			
- 비위원: 1인	- 비위원: 박신영(KISA)		

## □ Action Items

- 차기 KrIGF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본 회의에서 거론된 아이디어를 문서화 필요. 각자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화 요망
  - 유관 행사 참조 등을 통한 홍보 계획 마련: 김태은 위원
  - 워크숍 주제 및 패널 선정 관련 개선 방안: 오병일 의장
  - 전문가 pool 구성 방안 및 운영 방법: 김인숙 위원

## □ 2016 KrIGF 후속작업

- 2016 KrIGF 발표 자료, 동영상,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완료

## □ 2016 KrIGF 평가

- 총 132명 참석
  - 사전등록자 중 참석자 114인(86%), 현장등록 18인(14%)
  - 분야별 참석자: 공공계 67인(50%), 시민사회 19인(14%), 학계 26인(20%), 산업계 18인(14%), 기술계 2인(2%)

- 매 시간대 평균 참석자 40~50인으로 추정
- 각 세션 진행 시간이 짧아 심도 있는 논의가 힘들. 2시간 이상으로 세션을 구성한다면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  - 패널 수에 비해 세션 시간이 비교적 짧아 발언 기회가 적었음
- 전체 규모에 비해 세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동시간대에 듣고자 하는 세션 선택이 어려웠음
  - 해결 방안
    - ▶ 동시간대에 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각 세션을 구성
    - ▶ 사전에 세션 관련 자료 수령이 가능하다면 유동성이 증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- 홍보 관련
  - 개최 장소가 학교(세종대)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참석률이 저조
    - ▶ 장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홍보 대책이 필요. 예) 교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가산점 부여 등으로 학생 참석 유도
  - 세션별 세부 홍보가 필요하고, 유관 행사를 참고로 하여 홍보 대책을 마련
- 참석률이 높았던 세션에 대한 분석
  - (워크숍6) 사물인터넷 거버넌스: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정책
    - ▶ 최근 주요 이슈와 관련된 세션. 패널 및 사회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
    - ▶ 각 패널들 사이의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
  - (워크숍10) O2O 경제의 거버넌스
    - ▶ 방청객과의 교감이 잘 이루어졌던 세션
    - ▶ 이해당사자(기업)의 참여가 두드러짐

- 포럼의 '방향성'과 '지속성'을 위해 기획 과정에서부터 프로그램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
  - 프로그램 위원회가 이슈 선정, 패널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함
  - 프로그램 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
-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 pool을 형성하고자 함
  -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활용하여 공개적인 전문가 섭외를 요망
  - KIGA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전문가 pool을 구성 고려
- 매해 거론되는 특정 주제들의 경우, 연속성을 위해 카테고리 유지하는 것을 제안